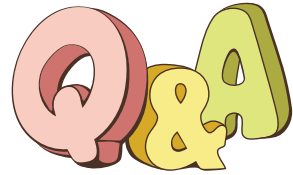


달걀 사육환경 표시



Q1 케이지 사육밀도 계산할 때 전체 사육면적을 총 사육수수로 나누면 되나요?

그렇지 않습니다. 전체 사육면적과 총 사육수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정상 범위에 들더라도 케이지 별로 사육밀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케이지 단위면적 당 사육수수로 계산해야 합니다.

Q2 우리 농장은 케이지 사육을 하지만 방사장이 있어요. 방사로 표시할 수 있나요?

방사장 소유만으로 방사(1번) 표시 할 수는 없습니다. 「동물보호법」 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방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
Q3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방사로 표시할 수 있나요?

「동물보호법」 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물복지인증과 상관없이 방사 표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.

Q4 두가지 사육방식을 병행 하고 있을 경우 난각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?

두 가지 이상의 사육환경에서 달걀이 생산된다면 반드시 각 사육환경 별로 각각 난각에 표시하여야 합니다.

관련 법률

[식품의약품안전처]

-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
-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 2항
- 축산물의 표시기준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-9호) 도4

[농림축산식품부]

- 축산법 시행령 별표1
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
-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1-1

관련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

농림축산식품부 www.mafra.go.kr 콜센터 1577-0954
식품의약품안전처 www.mfds.go.kr 종합상담센터 1577-1255

2018년8월23일부터
달걀 껍질에 사육환경을
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



달걀 사육환경 표시 예



- 시행 : 2018년 8월23일
※산란일 표기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
- 난각표시 변경사항 :



- 산란일 : 산란월일
- 고유번호 :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(또는 등록)시 부여된 5자리 고유번호
- 사육환경 : 방사(1), 축사내 평사(2), 개선케이지(3), 기존케이지(4)
- 사육환경표시는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의무사항임
- 위반 시

가축사육업 경영하는 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	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
식용란수집판매업자	미표시	· 1차 : 경고 · 2차 : 영업정지 7일 · 3차 : 영업정지 15일
	위조/변조	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



① 방목장은 1마리당 1.1㎡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.



② 모든 닭이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사 곳곳에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, 출입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, 너비 40cm 이상이어야 하며, 모든 닭이 방목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 수와 위치가 적절하여야 한다.
- ②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는 닭 1,000마리당 총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

③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에 있어야 한다.



④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 가족방역 관련 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

⑤ 방목장 토양의 물 빠짐이 좋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질척거리지 않도록 자갈 등을 깔아야 한다.



⑦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(식물)이나 잡목 등이 있어야 한다.



⑥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, 하늘을 나는 포식동물로부터의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하여 닭 1,000마리 당 최소 8㎡ 이상의 차양시설/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 (차양/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.) 차양시설/쉼터는 계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여야 한다.



⑧ 육성사에서 성계사로 옮긴 경우 3주 이내에 방목을 하여야 하고, 21~24주령 전에 방목을 시작하여야 한다.



⑨ 방목장은 「토양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,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,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.



⑩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

⑪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

⑫ 계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방목장에 설치된 산란장소가 아닌 곳에 산란된 달걀은 식용을 목적으로 출하해서는 안 된다.



- 0.075㎡/마리 케이지 사육



- 0.05㎡/마리 케이지 사육



① 방목장은 1마리당 1.1㎡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.



② 모든 닭이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사 곳곳에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, 출입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, 너비 40cm 이상이어야 하며, 모든 닭이 방목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 수와 위치가 적절하여야 한다.
- ②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는 닭 1,000마리당 총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

③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에 있어야 한다.



④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 가축방역 관련 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

⑤ 육성사에서 성계사로 옮긴 경우 3주 이내에 방목을 하여야 하고, 21~24주령 전에 방목을 시작하여야 한다.



⑥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, 하늘을 나는 포식동물로부터의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하여 닭 1,000마리 당 최소 8㎡ 이상의 차양시설/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 (차양/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.) 차양시설/쉼터는 계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여야 한다.



⑦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(식물)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.



⑧ 방목장은 「토양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,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,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.



⑨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

⑩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

⑪ 계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방목장에 설치된 산란장소가 아닌 곳에 산란된 달걀은 식용을 목적으로 출하해서는 안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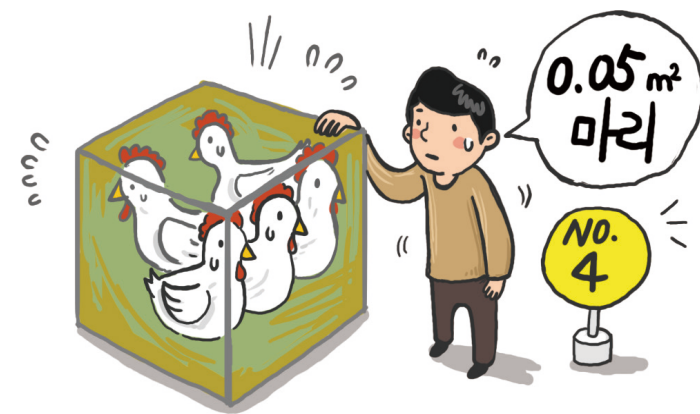


케이지 안·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

모래·목도 할 수 있어요



- 0.075㎡/마리 케이지 사육



- 0.05㎡/마리 케이지 사육